대한설비건설협회 홍평우 회장 재정경제부장관 예방

공공공사 낙찰률 상향조치 건의

대한설비건설협회 홍평우 회장을 비롯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장영수 회장 등 건단련 회장단은 지난 4월 3일 재정경제부 이헌재 장관을 예방하고, 건설업계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방침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대한설비건설협회
회장 홍평우

대한설비건설협회 홍평우 회장을 비롯한 건설단체총연합회(회장 장영수) 회장단은 지난 4월 3일 재정경제부 이헌재 장관을 예방하고, 건설업계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상향 조정키로 한 방침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이 자리에서 회장단은「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선을 공사원가인 예가의 88%선에 근접시키는 결단을 내려줘 업계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」면서「SOC투자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연 18조4천억원에 이르고 물류비용 또한 GDP의 15.4%인 69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,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」고 밝히고 경제발전과정에서 선진국들이 보여준 선례를 감안해 지속적인 SOC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.

이어 회장단은「지난해 우리나라의 SOC투자액 13조4천억원은 GDP 대비 2.3% 수준으로 세계은행이 제시한 적정투자규모 5% 수준보다 절대 부족한 현실이고 SOC스톡이 외국보다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감한 확대없이 효율성 제고만으로는 곤란할 것」이라고 설명했다.

또 회장단은「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제조업과 정보처리관련사업, 엔지니어링사업, 물류산업 등을 법인세 산출세액의 20%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매출액 급감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제조업에 비해 경영여건이 현저히 열악해진 건설업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」고 강조했다.